



경제위기와 국가별 노동현황

이슈분석 ③ - 영국

영국의 경제위기 : 그 영향과 대응

최영준 (영국 비스대학교 사회정책학과 조교수)

■ 머리말

영국은 미국과 함께 현 경제위기의 발상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연구기관들에 의해서 아이슬란드나 헝가리, 그리고 스페인 등과 함께 경제위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뽑히고 있다. 2008년 3/4분기에 들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에 의하면 영국의 경제는 내년 약 1.1%의 감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최근 제조업 공장 과 전국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업계에서도 인력감축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축소되어오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주의 정책을 사용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세제 의무를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낮추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가 회복되려는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영국 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의 옵션들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경제침체가 노동시장 및 국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과 대응에 대해서 최근의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다루고자 한다.

■ 노동시장과 근로계층²⁾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계층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일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총수는 2,191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수치는 5월부터 이전 3개월과 비교했을 때 15만 2,000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남성은 1,400만 명 정도인데, 이는 전 분기에 비해서 14만 9,000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감소 수준이 매우 낮아 단지 약 3,000명이 줄어든 780만 명이 전일제에 근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제의 경우 전체 750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이전 분기에 비해서 3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서 이 중 남성은 180만 명 그리고 여성은 2,37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산업별로 작년과 비교해서 볼 때, 교육·보건·행정에 관련된 종사자수는 오히려 4만 3,000명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4만 6,000명이 줄어들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재 총 고용인원이 286만 명으로 이는 1978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가 탈산업화로의 이동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업률의 경우 1990년대 초반의 경제침체 이래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년 8월까지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전 3개월에 비해서 실업자수가 16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199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 수준이다. 현재 실업자의 전체 수는 약 18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0.5%가 오른 5.7%를 기록하였다. 이는 또한 199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되고 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12월 말이 되었을 때 실업자수는 총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³⁾ ING의 경제학자인 제임스 나이틀리(James Knightley)는 2010년까지 총 실업자수가 250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실제로, 울워스(Woolworths)와 같은 소매상들이 부도 위기를 맞이하면서 몇 천 명의 인원이 감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롤스로이스(Rolls-Royces)도 최근 2,000명을 감원하였다.⁵⁾ 구인을 하는 건수 역시 9월부터 지난 3개월 동안 총 60만 8,000건으로 이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4만 여 건이 줄어든 수치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만 2,000건이 줄어든 수치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실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과 동시에 구인

1)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8/nov/25/oecd-recession>

2) 본 글은 영국 통계청에서 출판된 *Labour Market Statistics, October 2008*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http://www.statistics.gov.uk/STATBASE/Product.asp?vlnk=1944>)

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8/oct/16/unemploymentdata-economics>

4) <http://news.bbc.co.uk/1/hi/business/7724084.stm>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9월에만 3만 1,800건이 증가하여 총 93만 9,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8개월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8월의 경우 3만 5,700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2년 12월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 수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수치는 실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은행 전문가는 밝혔다. 그 이유는 청년실업이 5만 6,000명으로 급격히 상승했었고, 이들의 경우 직업도 찾지 못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어서 신청자수에 속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향후 3년 동안 1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을 돕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⁶⁾ 이 긴급예산은 실직을 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을 받거나 기술을 배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심각한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 분야나 재취업에 있어서 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질 것임을 정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의 3대 노조인 일반노조(GMB) 위원장 폴케니(Paul Kenny) 씨는 정부가 실업급여보다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노력이 옳다고 이 정책을 지지하고 하였다.⁷⁾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15%로 줄임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돕고자 하는 정책을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세제감면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연금과 노인계층

영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액급여의 기초연금 위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비중이 상

5)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8/nov/21/rollsroycegroup-automotive>

6) <http://www.dwp.gov.uk/mediacentre/pressreleases/2008/oct/emp113-151008.asp>

7) <http://news.bbc.co.uk/1/hi/business/7724084.stm>

당히 높은 연금체제를 갖추고 있다. 노동시장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의 기업연금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확정기여형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이러한 사적연금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의 경우 현재 약 7,800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10월 현재 전체 적자가 97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⁸⁾ 이는 바로 전달에 800억 파운드에서 더 상승한 수치이다. 10월 동안에만 연금자산이 6.8%가 줄어든 수치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작년 같은 달에 840억 이윤에서 급격한 반전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 연금관리청(Pension Regulator)에서는 기업연금운용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과 동시에 적자가 심각해질 경우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회복(recovery) 자금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연금관리청에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자금을 요청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인 자금의 요구가 현 경제침체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월 현재 약 6,400여 연금기금이 적자상태에 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3,100여 개가 흑자 상태에 있었지만, 현재는 단지 1,200여 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약 40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⁹⁾ 피고용인의 확정기여형 연금의 총 가치는 2007년 10월과 2008년 10월 사이에 약 28%가 감소된 3,950억 파운드로 추산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의하여 모아진 67억 파운드를 합한 수치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피고용인이 퇴직 후 얼마를 받을 것인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나 기금 운용의 문제가 고용주에게 가게 되지만, 확정기여형의 경우 펀드의 투자에 대한 결과가 퇴직 후 개인의 연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위기는 비단 근로계층뿐 아니라 연금이나 노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한 컨설팅 회사의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의 위기가 끝나면 다시 호황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감소된 연금자산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주장된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되거나 곧 퇴직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8) <http://news.bbc.co.uk/1/hi/business/7719799.stm>

9) <http://news.bbc.co.uk/1/hi/business/7689772.stm>

는 여전히 위험성의 여지가 있다. 현재 개인연금의 경우 따로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연금에 비해서 덜 보수적으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투자를 한 사람들의 경우 더욱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의 하락은 영국의 노인들에게 또 다른 위협을 주고 있다. 연금급여의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에서 많은 연금생활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노후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삼는다. 특히 경제위기가 온 이래로 집을 서서히 은행으로 넘기면서 현금을 받는 소위 이퀴티릴리즈제도(equity release scheme)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집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평균 약 3만 파운드(약 6천만 원)이 줄어들었고, 하락 폭도 현재 15%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주택을 노후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준비해 온 연금생활자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연금생활자들에 직접적으로 겨냥한 대책들을 특별히 내어놓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 맺음말

대부분의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침체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수가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빈곤이나 삶의 불안정성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흐름이 지속될 경우 근로계층의 실업 문제부터 연금생활자들의 경제적 삶의 불안정성 등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경제침체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확대할 것인지에 - 세금을 축소시키는 방안(간접세 혹은 직접세로) 혹은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는 사람들의 경제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는 여타 기존의 사회정책들이 어떻게 경제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국 국민들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LI**